



## 호스피스 는 생명사랑입니다

김수지(본회 회장·이대간호학과 교수)

호스피스란 “환자가 남은 여생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질 높은 삶을 살도록, 중국에는 평안하고 복된 죽음을 맞이하도록 그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며, 또한 사별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경감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총체적인 돌봄 활동”을 일컫는다. 따라서 호스피스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호스피스는 죽음을 눈앞에 둔 말기환자와 그 가족을 돌보고 섬기는 ‘이웃사랑’이다. 환자가 남은 삶의 잔여기간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품위를 유지하면서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으로 보살피고 돌본다. 이러한 돌봄은 흔히 생사의 기로에서 이별을 앞둔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경감시키기 위해 여러 사람들에 의해 정성스럽게 총체적으로 제공된다.
2. 호스피스는 인간의 신체적 건강회복에 초점을 맞춘 의료적인 치료라기보다는 이러한 영역을 뛰어넘어 인간의 영적, 사회적인 관계성의 확립과 풍요한 삶에 초점을 맞춘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분에 집중한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전인적 평안을 도모하는 돌봄에 초점을 두어 통증관리, 정서적 지원, 영적지원 등 포괄적인 돌봄을 제공한다.
3. 호스피스에서 바라보는 죽음의 개념은 사회적인 통념이나 법적인 죽음 개념인 심장사(心腸死)보다 생활현상이 끝나는 생활현상종지설(生活現象終止設)에 더 가깝다. 따라서 호스피스는 말기환자의 목숨을 연명하기위한 인위적인 개입이 아닌, 살아있는 동안 사람답게 살도록 관계를 돈독히 하며 보존하고 자연스러운 삶의 동반자로서 생명을 나누며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띤다. 바로 이러한 연민과 사랑의 돌봄을 통해 환자와 가족들은 죽음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4. 호스피스는 죽음을 미화하거나 죽음을 조장하는 일이 결코 아닌, 생명의 마지막 한 가닥의 호흡까지도 사랑으로 아끼고 감싸 안는다. 이것은 단순히 평안한 죽음을 선물하는 시혜차원을 넘어 안식과 함께 전개될 새로운 차원의 영원한 생명으로 안내하는 생명운동 이다.
5. 호스피스는 생의 말기에 처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직접 사랑의 행동으로 전하는 마지막 봉사이다. 따라서 호스피스는 그 자체가 사람을 사랑하는 행위이며, 이를 통해 환자가 죽음에 대한 의미를 찾아 수용함으로써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그를 사랑으로 돌보고 보살피는 섬김의 활동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호스피스'는 '생명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호스피스는 생명을 사랑함으로써 여생을 활기차게 살도록 돕는 생명 살리기 운동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호스피스야말로 죽음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함으로써 꺼져가는 생명을, 받아드리고 제대로 잘 보존하며 살수 있도록 소생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말기 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많은 분들 중에 이미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는 예가 허다하다.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고 삶의 한 과정이다. 세상에 태어나는 출산처럼 세상을 떠나는 삶의 한 과정인 것이다. 하지만 이미 받은 생명을 사랑으로 돌봄으로써 이 땅의 제한된 생명에서 저 하늘의 영원한 생명으로 비상하는 극적인 승리를 바라보는 기쁨이기도 하면서 때로는 소망 없이 꺼져가는 생명의 잔해 위에 드리운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를 바라보는 통분일 수도 있다.

호스피스의 생명사랑운동으로 인해 우리는 각자 모든 인간은 사랑 안에서 사랑을 위해 창조되었으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생명을 사랑함과 동시에 생명의 주체이신 하나님, 그리고 서로를 이웃으로 사랑하도록 지음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을 공유할 수 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상대방에게 생명을 준다는 사실은 의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다. 정신과 의사인 슈피겔 박사는 유방암이 재발되어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들을 위한 자조지지그룹(self-help support group)을 만들었다. 이 환자들은 한 주간에 한번씩 만나서 서로 간에 용기와 희망을 주려고 노력하였다. 처음에는 신세 한탄이 주를 이루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가 깊어지고 환자들 간에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2배인 평균 4년을 더 살았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절망 속에서 죽음만을 기다리면서 산 것이 아니라 생의 의미를 찾으며 보람 있게 살다가 죽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풍성한 삶(생명)도 나누게 된다는 것을 입증한 예이다.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일은 인간의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며, 결코 인간의 지식이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의 생명을 그분의 섭리대로 거두어 가신다는 경이로운 사실 앞에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해 보려는 시도 못지않게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해 보려는 시도 역시 하나님의 권능을 대신하려는 인간의 오만일 뿐이다. 인간이 생사를 주관 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 인간성에 대한 더 큰 모독은 없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태어나고 성장이 있기 마련이다. 호스피스는 삶의 행복을 발견하고 보존하며 유지하는 운동이다. 이렇듯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고 삶의 행복을 발견하고 보존해가는 운동으로서 호스피스는 진정한 의미의 돌봄 행위가 그 핵심이다.

-다음 달에 계속 됩니다-